

‘철인’ 송승민, 광주FC에서 다시 뛴다



프로축구 K리그1 광주FC로 돌아온 측면 공격수 송승민. <광주FC 제공>

2014년 광주서 프로 데뷔 19경기에 나서 팀 1부 승격에 이바지
왕성한 활동량의 측면 공격수 ... “경기장에 모든 것 쏟아붓겠다”

‘철인’ 송승민이 임대로 친정 광주FC에서 다시 뛴다. 광주는 21일 “광주 유니폼을 입고 4시즌 동안 활약한 측면 공격수 송승민(29)을 포함스틸러스로부터 1년간 임대 영입했다”고 밝혔다. 프로 8번째 시즌을 앞둔 송승민(186cm·77kg)은 순간 속도, 동료를 활용한 연계 플레이가 뛰어난 측면 공격수다. 최전방 공격수까지 소화 가능한 송승민은 왕성한 활동량을 앞세워 적극적인 수비 기법에도 나서며 공격진에 활기를 불어넣는다는 평가를 받는다. 송승민은 ‘철인’과 ‘캡틴’으로 광주팬들의 사랑을 받았던 선수다. 2014년 광주 유니폼을 입고 프로 무대를 밟은 그는 데뷔 첫해 19경기에 나서 팀의 승격에 이바지했다.

송승민은 이후 광주에서 4시즌을 뛰면서 130경기에 나와 12골 11도움을 기록하는 등 팀의 핵심 선수로 자리매김했다. 꾸준하게 실력을 보여준 송승민은 뛰어난 자기 관리로 부상·경고 누적·퇴장 등의 온갖 약재를 피해 가면서 연속 출장 기록도 쌓아갔다. 송승민은 2017년 6월 3일 강원전에서 측면 공격수로 선발 출격해 67경기 연속 출전 기록을 이었다. 2013년 K리그에 승강제가 도입된 이후 1부 리그 최다 연속 출전 기록이었다. 송승민은 2018년 포항 이적 후에도 그라운드를 굳게 지켰다. 같은해 7월 7일 K리그 통산 필드 플레이어 역대 최다 연속 출장 기록(104경기)을 달성하며 ‘철인’에 등극했다. 2015년 8월 23일 제주전에서 시작된 송승민의 놀라운 여정이었다.

2019·2020시즌 상무에서 군 복무를 수행한 송승민은 K리그 통산 173경기 15골 13도움을 기록하고 있다. 가장 부지런히 그라운드를 누볐던 그는 2017년에는 광주의 ‘캡틴’으로도 뛰었다. 송승민은 주장 완장을 찼던 2017년 38경기를 모두 완주하면서 5골 2도움도 기록했다. 김호영 감독은 “송승민이 그라운드에서 보여주는 활동량과 연계, 헌신은 공수 밸런스를 맞추는 데 큰 도움이 될 것”이라며 “무엇보다 광주를 잘 알고 있는 선수인 만큼 경기장 안팎에서 팀에 긍정적인 효과를 불어넣어 줄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익숙한 광주로 돌아온 송승민은 ‘초심’으로 제2의 전성기를 열겠다는 각오다. 송승민은 “광주는 내가 프로 선수로서 성장할 수 있게 만들어 준 감사한 팀”이라며 “4년 만에 친정팀에 복귀한 만큼 신인의 자세와 절실한 마음으로 경기장에서 모든 걸 쏟아붓겠다”고 포부를 밝혔다.

/김여울 기자 wool@kwangju.co.kr



“K리그와 유럽축구
격차 좁히는데 힘쓸 것”

박지성 전북 어드바이저 취임

전북 현대의 ‘조연자’로 나서며 국내 프로축구 무대에 입성한 ‘영원한 캡틴’ 박지성(40)은 “K리그가 유럽 축구와 격차를 좁히는 데 힘쓰겠다”고 말했다.

박지성은 21일 경기 고양 현대모터스튜디오에서 열린 전북 어드바이저 취임 기자회견에서 이같이 말했다.

박지성은 차범근 전 수원 삼성 감독에 이어 2000년대 유럽축구 무대를 개척한 한국 축구의 ‘선구자’이다.

선진 유럽 축구 시스템을 10년 넘게 경험한 박지성은 앞으로 프로 선수와 유소년 선수 선발, 육성, 스카우트, 훈련 시스템 등과 관련해 전북에 조언하는 역할을 한다.

전북은 그에게 ‘어드바이저(위원)’라는 직함을 줬다.

앞서 2017년 11월부터 1년여 동안 대한축구협회(KFA) 유소년본부장으로 일하며 행정가 경력을 시작한 박지성은 이번엔 프로축구 K리그 무대에서 일하게 됐다.

일본 J리그와 유럽 무대에서 뛴 박지성은 국내 프로팀에서는 뛴 적이 없다.

박지성은 “고등학교 때부터 K리그에서 뛰는 것을 꿈꿨다. 국내 무대에서 처음 활동하게 된 팀이 최고의 클럽인 전북이라는 점에 대해 감사하게 생각한다”고 말했다.

박지성은 22일 경남 남해 전지훈련지에 선수단, 코치진과 상견례를 하며 업무를 본격 시작한다. /연합뉴스

레알 마드리드 충격의 역전패
3부 리그 팀에 저 국왕컵 탈락

스페인 프로축구 ‘거함’ 레알 마드리드가 3부 리그 팀에 저 코파 델 레이(국왕컵)에서 조기 탈락하는 수모를 당했다.

레알 마드리드는 21일 스페인 알코이의 캄포 무니시팔 엘 콜라오에서 열린 2020·2021시즌 국왕컵 32강전에서 세군다 디비시온 B(3부 리그)의 알코야노와 연장 접전 끝에 1-2로 역전패했다.

레알 마드리드가 스페인의 FA컵 격인 국왕컵에서 16강에 들지 못한 것은 부정 선수 출전으로 32강전에서 몰수패를 당했던 2015·2016시즌 이후 5시즌 만이다.

레알 마드리드는 또 공식전 최근 3경기에서 무승(1무 2패)을 기록하며 부진에 빠졌다.

레알 마드리드는 지난 45분 마르셀루가 왼쪽에서 울린 대각선 크로스를 밀리타이 헤더로 연결해 선제골을 뽑았다. 그러나 알코야노가 후반 35분 승부의 균형을 맞췄다. 호세 솔베스가 왼쪽에서 올라온 코너킥을 달려들면서 눈스톱 슈팅으로 마무리해 골망을 흔들었다.

알코야노는 연장 후반 5분 공격수 라몬 로페스가 경고 누적으로 퇴장당해 10명으로 레알 마드리드를 상대해야 하는 위기를 맞았다.

하지만, 연장 후반 10분 후안 카사노바가 결승골을 넣어 알코야노가 승리를 거머쥐었다. /연합뉴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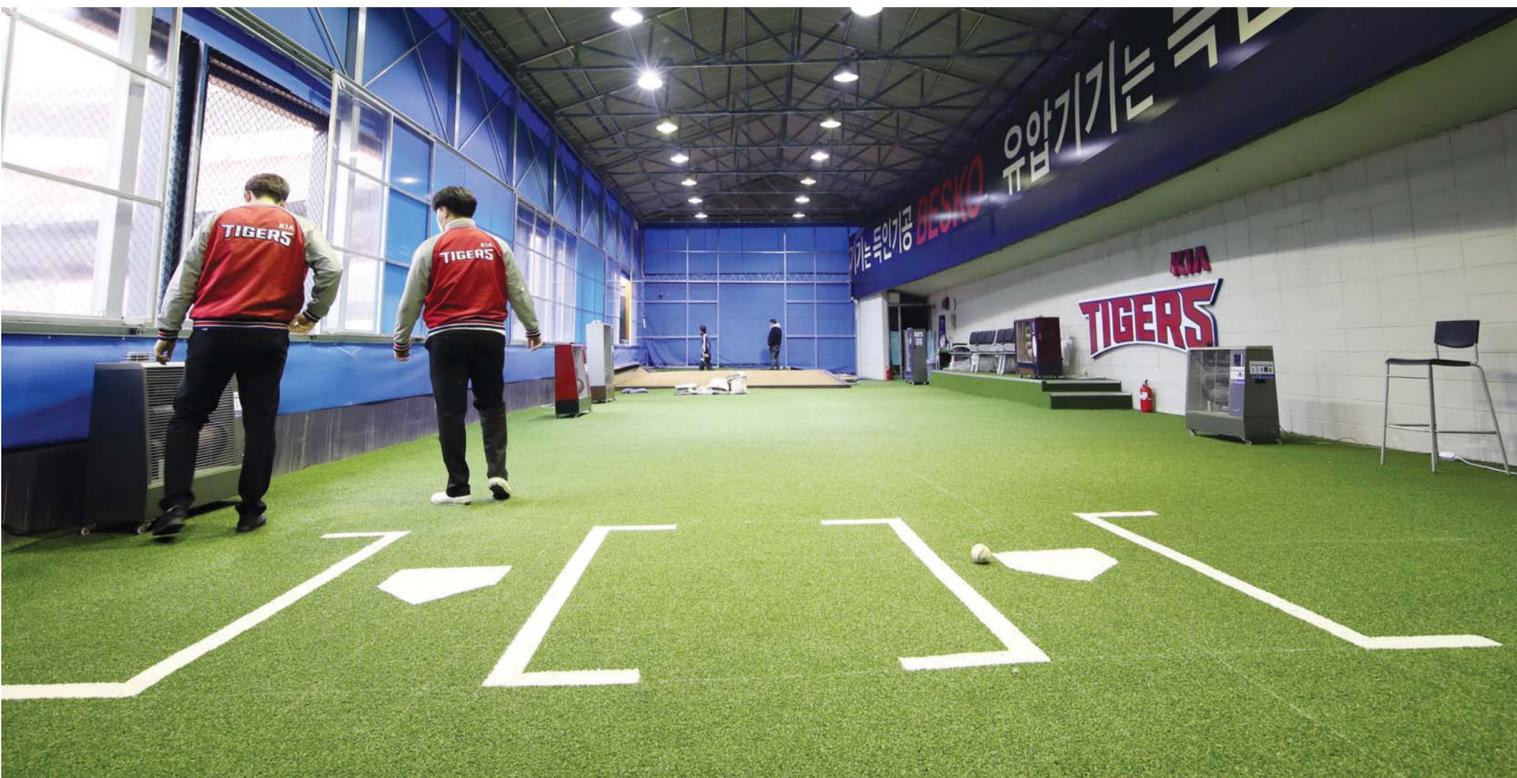
K리그2 2월 27일 개막 ... 전남 드래곤즈, 충남 아산과 대결

K리그2 2021시즌이 2월 27일 대망의 막을 올린다. 한국프로축구연맹은 21일 2021시즌 K리그2 정규라운드와 플레이오프 일정을 확정해 발표했다. 코로나19 시대의 두 번째 시즌은 2월 27·28일 열리는 개막라운드와 함께 정상적으로 일정을 시작한다.

경남FC와 FC안양이 27일 오후 1시 30분 창원축구센터에서 가장 먼저 2021시즌을 연다. 전남은 지난해 플레이오프에서 수원FC에 패하면서 승격의 꿈을 이루지 못했지만, 이정협·임민혁·김영찬을 영입하는 등 전력 보강을 하며 이번 시즌 승격 기대감을 높였다. 초대 감독 이우형 감독이 복귀한 안양은 코스타리가 국가대표 출신인 조나만 모야로 화력을 강화했다.

전남드래곤즈는 27일 오후 4시 광양전용구장에서 충남아산과 개막전을 갖고 승격을 위한 도전에 나선다. 같은 시간 안산와스타디움에서는 안산그리너스와 김천상무가 만난다. 김천으로 연고지를 옮긴 상무프로축구단이 ‘김천상무’로 시작하는 첫 무대다. 28일에는 두 경기가 진행된다. 부천FC와 대전하나시티즌의 경기가 오후 1시 30분 부천종합운동장에서 열리고, 오후 4시에는 부산아이파크와 서울이랜드가 부산구덕운동장에서 격돌한다. 올 시즌 K리그2는 36라운드 일정을 소화한 뒤 K리그 승격을 위한 플레이오프를 갖는다. K리그2 정규라운드 3위팀과 4위팀의 준플레이오프 경기는 11월 3일 열리고, K리그2 정규라운드 2위팀과 준플레이오프 승리팀의 플레이오프 경기는 11월 7일 진행된다. /김여울 기자 wool@kwangju.co.kr

기아챔피언스필드에 스프링캠프 ... “폭설·한파에도 걱정 없어요”



KIA 타이거즈 선수단의 스프링캠프가 차려지는 광주 기아챔피언스필드에서 21일 오후 구단 직원들이 방풍과 방한을 위해 설치한 불펜의 시설을 살펴보고 있다. KIA는 코로나19로 인해 해외전지훈련이 아닌 광주-기아챔피언스필드와 함평 헬리콥터필드에 스프링캠프를 차려 오는 2월 1일부터 2021시즌을 위한 담금질에 들어간다. /연합뉴스

KBO 선수단 코로나 전수 검사

스프링캠프 앞서 의무 실시
음성 확인서 있어야 캠프 참가

KBO 선수단이 스프링캠프에 앞서 코로나19 전수 검사를 받는다. KBO는 최근 코로나19 대응 TF회의를 열고 ‘스프링캠프 코로나19 대응 매뉴얼’을 확정했다.

이번 대응 매뉴얼은 선수단과 리그 관계자들이 방역 지침을 준수해 안전하게 스프링캠프를 마치는 데 중점을 뒀다.

KBO와 10개 구단은 캠프 참가 선수단을 대상으로 코로나19 검사를 의무적으로 실시한다.

감독, 코치를 포함한 선수단은 물론 트레이너, 훈련보조, 통역, 매니저, 식당 종사자 등 캠프 현장에서 상주하며 선수단과 밀접하게 접촉하는 관계자도 진단 검사 결과 음성이 확인돼야 캠프에 참

가할 수 있다. 각 구단은 검사 대상자 명단을 오는 25일까지 KBO에 제출한 뒤, 진단검사를 거쳐 30일까지 음성 확인서를 보내야 한다. 음성 확인서는 25일 이후 검사한 건에 대해서만 인정된다. 기한 이후 추가로 캠프에 합류하는 선수도 음성 확인서를 제출해야만 훈련에 참여할 수 있다. 외국인선수는 방역당국이 정한 지침에 따라 국내 입국 직후, 자가격리 해제 전 진단검사를 하는 만큼 검사 대상에서 제외됐다. KBO는 선수단이 진단검사를 받은 이후 캠프 시작 전까지 외부인과의 접촉을 최대한 자제해 달라고 요청했다. 캠프 기간 각 구단은 선수단 숙소와 훈련 시설에 비접촉 체온계를 설치해야 하며, 출입시 반드시 체온 검사 및 출입 명부를 작성해야 한다. 선수단 주요 동선에 외부인 출입은 금지된다. /김여울 기자 wool@kwangju.co.kr

KIA 타이거즈 유니폼 바뀐다

모기업 기아차 사명·로고 변경
빨간색 유지하고 검은색 추가

KIA타이거즈가 2021시즌 달라진 유니폼을 입고 뛴다.

KIA의 모기업인 기아자동차는 최근 사명에서 ‘자동차’를 떼고 ‘기아’로 새 단장을 했다. 그리고 도심 야경을 배경으로 한 화려한 드론 불꽃쇼를 통해 새로운 로고도 선보였다. <사진> 새 로고는 종전의 타원형 테두리를 없애고, KIA 알파벳을 간결하고 미래 지향적으로 표현했다.

또 그동안 기아 로고의 상징이던 붉은색을 대신해 미드나잇 블랙과 폴라 화이트를 적용했다. 모기업의 변화에 맞춰 KIA의 로고와 유니폼도 바뀐다.



유니폼과 장비에 새로운 로고가 적용되고, 기존 네이비 대신 미드나잇 블랙이 반영될 전망이다.

KIA 타이거즈 관계자는 “모기업의 로고가 바뀌면서 팀의 로고와 색상도 그에 맞춰 변경한다”며 “빨간색은 유지하고 새로운 검은색이 더해질 예정이다. 기존 스타일에 어느 정도 색 변화를 줄 것인지에 대한 논의가 이뤄지고 있다”고 밝혔다. /김여울 기자 wool@kwangju.co.kr